

정보검색시스템과 콘텐츠로 승부한다

“불황에는 오히려 기술투자를 해야 합니다. 벤처기업의 살길은 기술입니다.” 10년 가까이 정보검색시스템 개발에 몰두하는 코스모정보통신의 문성일 사장의 말이다. 일반 텍스트 검색시스템부터 이미지, 동화상까지 모든 분야의 검색기술을 보유하고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한 코스모정보통신을 찾아가 불황의 터널을 이겨낸 비결에 대해 들어봤다.

〈글/박민식 기자〉

전 문화를 지향하는 코스모정보통신(대표 문성일)은 업계에서 인정하는 벤처기업이다. 검색시스템 분야에서의 독특한 기술과 전체인원 38명 중 기술인력이 30명인 것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문사장은 불황 극복 비결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 인연을 맺은 기업에게 신뢰를 잃지 않는 것이며, 아울러 미래를 내다보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준비된 기업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찾아온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코스모정보통신은 지난해 어려운 시기였지만 특화된 기술과 창립 초기부터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인력감축이나 구조조정 없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정보검색시스템 개발의 선두주자

각종 정보검색시스템을 비롯한 콘텐츠 개발, 사이버 비즈니스 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코스모정보통신은 1992년에 설립됐다. 설립 이후 한국전자통신연구소의 기술정보DB를 비롯해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상품정보DB 구축, 한국전력의 정보검색시스템 개발, 서울시의 산업경제정보통신망 개발, 하나로통신의 홈페이지 제작 등 수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문사장은 “코스모정보통신의 가장 큰 장점은 기술력이다. 이것은 다양한 정보검색엔진에 잘 나타나 있는데 엑스칼리버(Excalibur), Easy Finder, 능동적 정보검색 및 배포시스템 등이 좋은 예”라고 설명했다.

능동적 정보검색 및 배포 시스템은 정보의 수집, 색인, 검색, 배포를 총망라한 시스템으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정보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기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나 인터넷을 주기적으로 탐색하여 자동 인덱싱을 거쳐 검색이 이루어지며 사용자 프로파일에 등록된 요구에 따라서 푸시 시스템을 통해 최종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엑스칼리버는 텍스트 검색 제품(Text RetrievalWare)과 비주얼 검색 제품(Visual RetrievalWare)으로 나뉘지는데, 텍스트 검색 제품은 생명체가 정보를 처리하는 신경망시스템 방식으로 자료 자체에 있는 패턴을 스스로 습득 및 기억하여 내용과 부합하는



〈그림 1〉 정보검색시스템인 엑스칼리버 및 Easy Finder 화면

색인을 자동 추출·검색한다.

비주얼 검색 제품(Visual RetrievalWare)은 화상자료를 검색하는 이미지 검색 솔루션으로 전자쇼핑, 전자도서관, 신원조회시스템, 동화상 검색시스템 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차세대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실현시켜 준다.

Easy Finder는 한번의 검색 명령으로 다수의 웹 검색엔진에서 검색 결과를 추출하는 메타검색 프로그램이다. 검색어를 지정한 시간에 반복 검색해주며 검색결과를 업데이트하는 예약 기능을 비롯해 검색된 사이트를 웹 문서로 실시간에 확인할 수 있는 웹뷰 기능, 검색결과를 탐색기 형태로 변환시키는 기능, 중요 사이트 정보를 트리구조의 북마크로 관리하는 Web-Book 기능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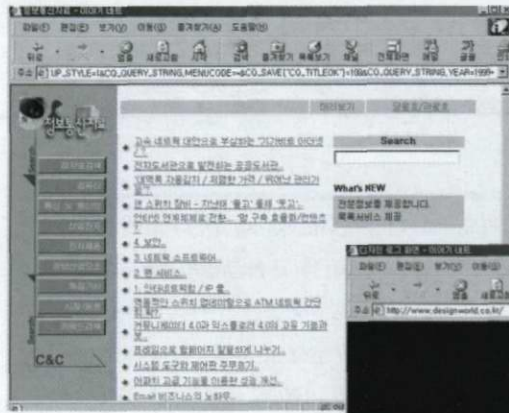
한편 코스모정보통신은 산업디자인종합정보를 비롯해 C&C, 맞춤뉴스와 같은 콘텐츠도 개발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산업디자인 종합정보는 우수산업디자인에 대한 벤치마크를 비롯해 산업디자인 인력 및 기업정보 등 산업디자인과 관련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이 정보는 동화상, 이미지, 애니메이션, 음성 등 멀티미디어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산업디자인 정보가 필요로 하는 시각적 효과를 고려해서 제작된 것이 특징이다.

C&C는 정보통신 관련 국내잡지(30여개)와 해외(유럽)정보를 클리핑하는 서비스로 현재 3년여의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다. 맞춤뉴스는 검색엔진과 자체 조사인력을 투입하여 국내 일간지, 정보통신관련 신문 등의 관련 뉴스들을 클리핑하여 푸시기술을 이용해 제공하는 콘텐츠로 각 회사의 인트라넷을 통하여 서비스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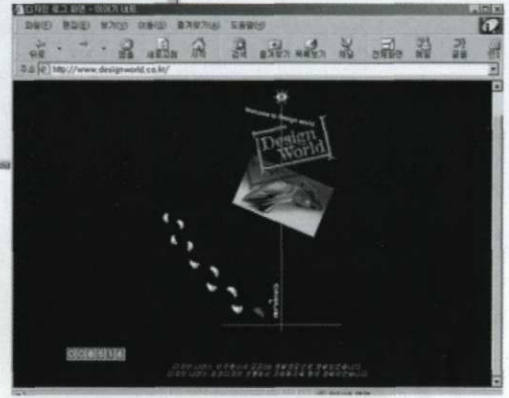
한편 코스모정보통신은 산학협동연구(고려대학교 장동식교수)체제를 구축해 향후 정보검색의 핵심이 될 내용기반검색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다. 문사장은 "내용기반검색기술은 언어장벽에 부딪치지 않고 세계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요소기술이기 때문에 그 범위가 국내뿐만이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사용될 수 있다."고 하면서 "지금의 기술에 만족하면 미래의 승부에서 패배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한발 앞서 준비한다."라고 덧붙였다.

종합적인 사이버 비즈니스 추구

코스모정보통신이 향후 추구하는 방향은 세가지이다. 첫번째



〈그림 2〉 다양한 콘텐츠 화면들



는 현재의 사업인 에이전트 및 정보검색시스템 등을 포함한 IT기술 개발과 이를 활용한 정보시스템 구축 기업이며, 두번째는 각종 정보를 인터넷에 담은 멀티미디어 콘텐츠 프로바이더, 세번째는 DB마케팅 및 사이버 비즈니스 추구이다.

문사장은 "세요소가 절묘하게 결합할 때 명확한 코스모정보통신의 방향이 결정된다. 현재는 첫번째 사업에 많이 의존하고 있지만 그동안 꾸준히 준비를 해왔으니 1-2년 안에 전체적인 모습이 완성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향후 방향을 설명했다.

이런 비전에 따라 코스모정보통신이 다년간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다. 기존의 수출입 등의 상거래 활동을 사이버 세계로 옮겨와 실행하는 것으로 국내 시장을 탈피해 해외시장을 중심으로 한 전자상거래 프로젝트이다. 현재 유럽의 전문컨설턴트와의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1년 내에 유럽을 중심으로 해외 진출이 가시화 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예상 매출액을 묻는 질문에 "저희에게는 매출액의 규모는 의미가 없으며 어떤 부분에서 수입을 올리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우리는 그동안 꾸준히 준비해 왔다. 따라서 올해는 예상외의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웃음을 지어 보였다.

불황의 터널을 벗어나 기술 개발과 수익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는 코스모정보통신의 올해 활동이 주목된다. 